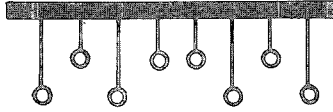


특별취재



건강한 지구, 건강한 기업

삼성지구환경연구소에 대하여



삼성지구환경연구소 김광태소장

1992년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되었던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이 채택되었고 이후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일반에 널리 인식되면서 경제 5단체장들이 「기업환경선언」을 하면서 기업들도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생

산된 상품은 시장경제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는 점에서 환경투자보다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삼성그룹의 NGO, 삼성지구환경연구소에 대해 알아본다.

중구 봉래동 1가 25 남대문빌딩 10층에 위치한 삼성지구환경연구소, 김광태 연구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삼성지구환경연구소를 소개하고자 한다.

문 : 연구소 설립동기와 목적은 지구 환경문제가 벌써부터 대

삼성그룹은 앞으로
환경규제를 앞세운 세계
무역전쟁에서 선진국과
경쟁하여 생존,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것이며
삼성지구환경연구소는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99

두되고 있지만 특히 저희 그룹에
서는 회담이후 국제적인 환경문
제에 대처하고자 그룹내의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환
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
는가에 대하여 정책수립과 전략
을 연구할 목적으로 지난 3. 27일
그룹차원의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
해 전문가를 모집하고 의견을 수
립하여 9. 1일에 개소를 하게 되
었습니다.

문 : 삼성의 환경정책은

작년에 리우회담이 있는 시점
에서 이견회 회장님께서 기업의
「환경선언」을 통하여 기업활동이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
여, 자연과 인간을 중시하는 기업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환경보전
의지를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생산활동의 터전인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야말로 궁
극적으로 기업활동의 최우선 과
제입니다. 또한 환경 보전을 위한
투자는 기술개발 못지 않게 미래
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
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금년에 「그룹의
환경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UR」이후에 전개된 「그
린 ROUND」에 대처하는 정책
개발과 대응책 연구에 초점을 맞
추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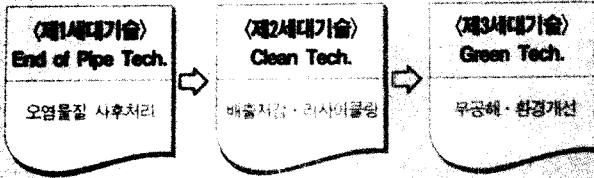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환경5
개년 계획을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프레온 가스를 '95년까지
사용을 전면 중단하겠고 둘째, 대
기오염 방지를 위해 모든 사업장
에 대해 석탄 및 B-C유 대신
LNG, LPG등으로 대체하여 대기
오염을 줄이는 크린에너지로 전
환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사업구
조로 전환하겠으며 셋째, '95년까
지 당초 계획은 전국 9개 지역이
었으나 현행은 7개지역으로 사업
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을 앞
으로는 그룹공동처리장을 설치하
여 직접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며
또한 삼성전자에서는 대규모 소
각로를 건설하고 있어 내년 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일은
'95년까지 이루어지며 약 500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넷째, 날로
악화되고 있는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그룹내 폐수처리장에 금붕
어를 키울 정도로 폐수를 완전 정
화시키고 더 나아가 음용수 수질
기준까지 달성할 것입니다. (이미,
용인자연농원은 음용수기준으로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음)

문 : 지구환경연구소가 국내뿐 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환경문제를
생각하고 있는데 기업으로서 국
제적인 대처방안은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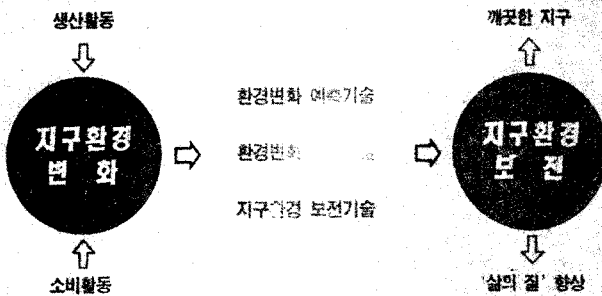
국제적 대응은 여러국가에 직

지구환경기술

기술변화추세



기술체계도



점 방문, 현장을 조사하여 실질적인 정보를 입수하여 신속하게 국내에 feedback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대처할 것이며, 최근에 전세계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해 「국제환경 인증제도」를 검토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이 움직임을 직시하

여 사전 대처하여야만 이후의 국가경쟁력을 갖추는데 그 기반을 구축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삼성그룹은 지구환경위원회를 통해 우리 환경을 위협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각종 공해를 추방하는 「Clean Tech, Clean Life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환경규제를 앞세운 세계 무역전쟁에서 선진국과 경쟁하여 생존,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문 : 지구환경연구소의 기구조직과 인원은

연구소내에는 그룹관리부문이 6명이며 환경정책부문이 8명으로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연구인원을 2배 정도로 인원을 보충하여 국가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문 : 환경관은

일단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후손을 위해서 환경보전을 해야하며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문제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며 우리가 버리는 오염물질을 우리 손으로 청소하고 버리지 않는 의식으로 파괴된 환경을 치유하는데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것이 우리 스스로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 : 삼성그룹의 경영철학을 간단히

삼성그룹의 기본경영철학은 자율경영입니다. 또한, 21세기 세계 초일류기업이 되기 위해 질위주 경영을 바탕으로 국제화, 복합화를 이뤄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 기업의 입장에서 정부에 대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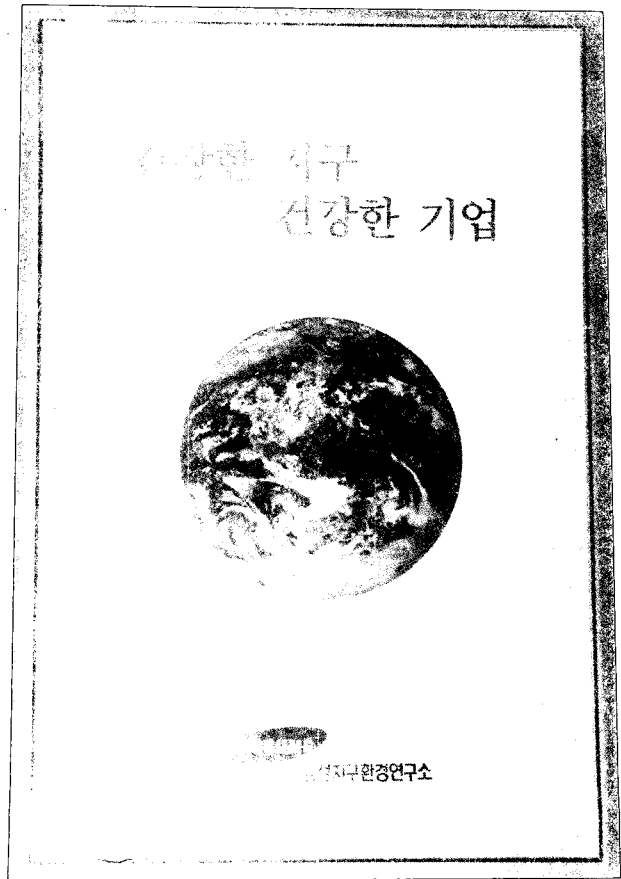
환경안전업무를 보면서 정부가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면서도 이것을 개선하거나 환경보호를 위해서 기업이나 국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기준이나 정책이 미흡한 것 같고 기업은 기업대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NGO는 NGO대로 환경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하는 서로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지 통합되고 조정되어 하나의 일원화된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삼성그룹의 대정부 건의 사항으로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국가나 국민이 살아갈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환경=생명=경제"라는 등식이 성립될 것이며 어느 한쪽을 매도하기 보다는 어차피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환경산업의 육성과 환경관련기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이 정책으로 반영되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을 하는 것 만큼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볼 때 총량적인 측면에서 치

66

삼성지구환경연구소는
기업에서 만든 연구소이지만
국제·국내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앞장서서 해결, 대책을 강구
함으로써 국가 사회에 공헌
한다는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59

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모델을 국가가 선정하여야 하며 환경채권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발행하여 국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여러가지 현안적 환경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이 올바르게 수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며 둘째, 현재 리우 회담이 끝나면서 Azenda 21에 의하면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대해서 무역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는 시간적 여유도 없이 국제환경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지 않으면 상당히 피해가 올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창구의 일원화가 되어야 하며 국가 나름대로 대책과 목표를 명확하게 하여 기업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세계, 환경단체, 학계, 국민의 공감대 등 각계의 목소리를 집약하고 기업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의 의견도 반영시켜 총체적인 한국형 ESSD모델을 개발하여야 하겠습니다.

문 : 앞으로 삼성그룹이 해야 할 환경과제는

작년에 그룹환경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갈뿐 만 아니라 저희가 21세기 대비한 ESSD를 위해 환경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실질적으로 환경사업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환경지표제도, 환경감사제도 이런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고, 제품의 평가를 하여 이것이 폐기물이 될때까지 자체적으로 제품평가를 실

“

삼성그룹은 이제까지는
오염물질만을 사후에 처리해
오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폐수, 폐기물 및
오염물질의 발생 자체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환경문제에 종합적, 사전적 협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시하는 것이며, 그다음 크린에너지를 위한 환경기술개발을 해야 되겠고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와 연관 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환경지도 등을 본격적으로 해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러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 :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삼성지구 환경연구소와 저희 환경보전협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앞에서 말씀한 바와같이 삼성그룹은 환경문제를 법적 규제에 대응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환경윤리성이 강조된 환경주의적 경영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한 '미래의 후손이 그들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

록 하는 성장' 즉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안전한 기술을 모든 투자계획에 포함시켜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 협회에 바람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관련단체로서 운영상 애로점이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부터는 관·기업·민간사이에서의 교량적 역할을 다하면서 정부의 정책 입안결정에 반영시킬수 있고 또한 국민들의 환경보전에 관한 계몽활동 및 기업활동에 대한 지도, 행정적 조정을 통해 다양한 미래 지향적인 협회의 기능과 부합되는 역할을 다했으면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재 : 김성호 기자